



e스포츠관, IT기업관, e러닝관 테마 전시

조선일보사, 디지털조선일보, 교육인적자원부, 미디어라이브인터내셔널이 주최한 '디지털 라이프 2004(Digital Life 2004)'가 지난달 1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기존 '컴덱스 코리아 2004'에서 '디지털 라이프 2004'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펼쳐진 이번 행사는 IT기업관, e러닝 특별관, eSports관-서울게임쇼 등 세가지 테마로 구성됐으며, 예년과 달리 비즈니스데이와 퍼블릭데이로 각각 이틀씩 나눠 진행돼 일반인들도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다.

글 신승철 기자 / 사진 이해성 기자

'디지털 라이프 2004(Digital Life 2004)'가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대서양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150개가 넘는 기업, 대학, 기관들이 부스를 열고 디지털 제품, 신기술 등을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e러닝, 인터넷 비즈니스, 생체인식 기술 등과 관련한 컨퍼런스가 이어졌다. 또한 프로게이머들간 라이벌 경기는 물론 일반 참가객이 참여할 수 있는 게임대회가 펼쳐져 호응도가 높았다.

16일 개막식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안병영 부총리,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 삼성전자 임형규 사장, LG전자 백우현 사장, 넥슨 서원일 사장, NHN 김범수 사장,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 행사장 곳곳에서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NHN에서 제작한 3D 골프 온라인

게임 '당신은 골프왕'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국내 디지털 기술의 현재와 미래 조망

IT기업관에서는 한국창업보육협회 참여로 이뤄진 '코비아(KOBIA: Korea Business Incubation Association) 특별관'과 '생체인식관' 등이 눈길을 끌었다. 코비아는 이달 오픈할 e커머스 코비앙 사이트 출시를 앞두고 홍보 및 BI(바이오IT)벤처기업들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전시회에 참가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국내 생체인식관련 주요제품과 신기술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 널리 알렸다. 컨퍼런스를 통해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본격적인 시장형성 단계에 있는 생체인식 솔루션 도입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고, 업계 신규 마케팅 지원 및 비즈니스 창출기회를 제공에도 열을 올렸다.



▲ '디지털 라이프 2004'가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대서양관에서 펼쳐졌다.



▲ e러닝 특별관에서는 EBS수능강의 인터넷 서비스 및 디지털자료실 및 e북 등 교육관련 디지털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e러닝 테마관, 학교도서관 정보화 모델관, 과학실험실 정보화 모델관 등에서는 EBS수능강의 인터넷 서비스 및 e러닝 홍보 영상물 상영, 사이버대학 및 인터넷 방송국, 디지털자료실 및 e북 등 교육관련 각종 디지털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 마련됐다. 또한 e러닝 기업관에서는 온라인교육 콘텐츠, EBS수능 서비스 하드웨어 및 솔루션, e러닝 콘텐츠 등과 관련된 약 30여 개의 업체들이 참가해 다양한 기술 및 서비스가 선보였다.

특히 'MP3를 활용한 학습법'을 소개한 한국사이버대학교 부스는 참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학습법은 학생들이 모든 강의를 MP3 플레이어로 내려 받아 자투리 시간을 활용, 수업을 듣는 학습방법으로 인터넷에서 반복 청취가 가능해 복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장 등으로 인해 수업이 불가능할 때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만이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장점을 전통적 강의법에 결합하는 동시에 학습자 중심의 강의법을 개발하고 특화하는데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한국사이버대학교 부스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는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웹토킹' 1개월 무료수강권을 지급하기도 했다. 실시간 웹토킹이란 한국사이버대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 배양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영어회화 향상 프로그램으로서 외국인과 온라인상으로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첨단 제품과 기술 경연 ... 감탄사 연발

기업들의 각 부스에는 미래형 첨단제품들을 경쟁적으로 선보여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특히 신세대들은 멀지 않은 미래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될 첨단 제품과 기술들에 대한 도우미들로부터의 설명에 진지한 표정이 역력했고 직접 시연해보는 적극성을 보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LG전자는 하드디스크를



▲ LG전자가 선보인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MF-HE700'. 1.8인치 20GB 하드디스크와 6만 5,000 색을 내는 2.2인치 TFT 액정을 달았다.

내장, 동영상과 MP3 재생하는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와 ▲300만 화소 카메라폰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복합기능의 MP3폰 ▲국내최초로 생체보안기능을 접합시킨 '지문인식' 폰, 당



▲ 삼성전자는 기존 제품들의 2배 수준인 명암비 8000:1의 PDP TV를 선보였다.

뇨병 환자들을 위해 개발한 당뇨폰, 110만 화소의 멀티미디어 스마트폰 등 총20여종의 첨단 신제품들을 뽑냈다.

삼성전자는 기존 제품들의 2배 수준인 명암비 8000:1의 PDP TV 'SPD-42P4 HD2'를 선보였다. 명암비는 화면의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의 밝기 차이를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깊이 있는 색감을 느낄 수 있다. 이 제품은 기존 5만 시간이었던 PDP TV 최적화면 구현 시간을 6만 시간으로 연장, PDP TV의 '장(長)수명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PC후면부의 얽히고 설킨 컴퓨터 주변기기의 복잡한 선들을 깔끔하게 처리해보려는 케이블도 등장했다. 유포시스가 내놓은 복합 케이블 '문어발'은 케이블 가운데 부분은 단선으로 돼있고, 양쪽 끝에서 여러개의 주변기기와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쪽 끝에는 모니터나 마우스에서 나온 선이 달려있어 본체에 꼽도록 했고, 다른 쪽 끝에는 모니터나 마우스 키보드 등에서 나온 선을 꼽는 USB포트등이 달린 박스가 있다.

페이스쓰리디는 얼굴인식 기술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



▲ 대학생들의 참신하면서도 기발한 발명품들이 전시되기도 했다.



▲ 게임 개발사의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게이머의 대결이 연일 펼쳐진 서울게임쇼는 관람객이 가장 많이 몰렸다.



▲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가 흥겹게 진행돼 아이들에게는 여름 방학의 좋은 추억이 됐다.

적합하도록 개발한 다양한 제품을 소개했다. 이들 생체보안 제품들은 컴퓨터 로그인용 문자대신 얼굴을 이용해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할 때마다 얼굴과 얼굴패스워드로 자동 생성되는 얼굴보안코드를 전송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매회 사용자ID 인증을 수행할 때마다 보안코드의 값이 자동으로 변경돼 믿고 쓸 수 있다고 한다. 이공일코리아는 장난감로봇, 로보싸피엔을 전시하고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로보싸피엔은 나사의 과학자인 딜덴이 디자인하고 2004년 토이쇼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제품으로 춤추고 휘파람을 불고 방귀를 끼는 등 그야말로 휴머노이드 토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컴퓨터 VDT증후군 및 스트레스 해소용 저주파 치료기 ‘e-TENS Lite’, 디카, 폰카, 스티커 사진을 한번에 인화할 수 있는 자판기인 ‘프리차오’, 일반 강의실이나 회의실의 오디오 비디오 기자재를 하나로 통합해 놓은 멀티미디어 교탁인 ‘위자드데스크’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됐다.

서울게임쇼 2004로 행사열기 ‘절정’

이번 전시회에서 게임 개발사의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게이머의 대결이 연일 펼쳐진 서울게임쇼는 관람객이 가장 많이 몰린 곳. 뜨겁게 달아오른 열기는 행사 마지막날에 열린 SKT T1과 KTF 매직엔스의 ‘스타크래프트’ 이통사 라이벌전으로 절정에 달했다. 치터테란 최연성과 악마토스 박용욱, 그리고 테란 황제 임요환, 프로토스 유저 박정길 등이 포함된 SK텔레콤T1팀과 영웅토스 박정석, 몽상가 강민, 폭풍저그 홍진호, 목동저그 조용호 등이 포함된 KTF매직엔스가 승리상금 1,000만원을 놓고 격돌한 이날 경기서는 KTF매직엔스가 4:1 승리를 거뒀다.

특히 서울게임쇼 2일째인 17일에는 스타크래프트 올드팬들을 위한 시니어 스타크래프트 대회가 펼쳐져 올드 스타크래프트 팬들을 기쁘게 했다. 씬장으로 잘 알려진 이기석이 핵사트론 유니폼을 입고 등장, “오랜만에 팬들을 만나서 기쁘다”면서 “선수 복귀를 위해 열심히 연습중이며, 곧 좋은 모습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벤트 전으로 펼쳐진 이날 대회는 씬장 이기석을 비롯해 기욤페트리, 성상훈 SKT 코치, 게임개발자로 변신한 저그 유저 변성철이 경기를 펼쳤다.

서울게임쇼는 e스포츠 이외에도 푸짐한 볼거리를 남겼다. 넥슨과 NHN 등이 대형 부스를 마련해 자사의 인기 타이틀들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카트라이더’, ‘큐플레이’, ‘크레이지아케이드 비앤비’ 등 게임을 참관객이 무료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며 수천개의 예쁜 메이플스토리 캐릭터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했다.

NHN은 2년 간 준비해 온 야심작 ‘당신은 골프왕’을 오픈 베타에 앞서 선보였다. 당신은 골프왕에서 나오는 3가지 맵인 초원, 해변, 사막 맵을 게임쇼 부스에서 그대로 구현하고, 9가지 홀을 돌면서 즐기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한 다양한 놀이를 준비, 참여한 관람객들이 놀이에 성공할 때마다 도장 하나씩을 찍어줬다. 최소 4개의 도장을 받은 관람객부터 시작해 최대 9개를 받은 관람객들에게는 비치볼과 골프공라디오, 골프우산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했다.

한편, ‘갯애프트’, ‘카트라이더’, ‘카운터스트라이크’ 등 5개 종류의 게임대회에는 일반 참관객들이 참석, 우승자는 소정의 상품을 받았다. 서울게임쇼에는 엄마의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이 유난히 많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가 흥겹게 진행돼 상호 게임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